

2009년도에 나를 일깨워 준 일들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이 상 만

1. 지구촌 최초의 꽃 씨앗, 요령고과(遼寧古果), *Archaeofructus liaoningensis*

2009년 9월에, 2009 International Symposium on Geosciences in Northeast Asia가 장춘 길림대학 동북아국제지학연구여교학중심(長春 吉林大學 東北亞國際地學研究與教學中心) 주최로 개최되었다.

회의 후 현지 지질답사차 요령성 북표 사합둔(遼寧省 北票 四合頓)에 소재한 중국사합둔고생물 화석관(中國四合頓古生物化石館)을 방문했다. 그 일대는 암상(岩相)이나 화석으로 보아, 중생대의 고운 화산재가 쌓여 이루어진 호성층(湖成層)임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1억 2천 4백 60만 년 전, 이 호수 가에서 지구촌 최초의 속씨식물의 꽃 씨앗, 소위 요령고과(遼寧古果)의 화석이 손 혁(孫 革), Ge Sun에 의해 발견되어 Science지 2002년 5월호에 발표되었다.

지구촌 최초의 꽃 씨앗을 찾아

진종일 이름 모를 평야를 달려간
옛 밭해 땅 요령성 북표 사합둔 오지엔

공룡이 익룡(翼龍)으로 진화
하늘로 날아오르던
중생대 쥬라기도 지나

잠자리 나비, 낮은 언덕을 유유히 선회하고
물새들 한가로이 노니는 해맑은 호수 가에
한자 남짓한 풀꽃에 잉태한
지구촌 최초의 꽃 씨앗이

하늘의 뜻을 헤아렸던 가
화석으로 화신

일억 이천 사백 육십 만년 아직도 살아
영원을 꽃피운 종의 기원

그 거룩한 몫을 다 한
중생대 증인, 네 앞에
내 스스로의 무덤에서 깨어나
나를 뒤돌아보게 한다.

2. 지구촌 첫 사랑, 앵무익룡화석(鸚鵡翼龍 *Psittacosaurus* 化石)

중국 조양시 용성구 칠도천자진(朝陽市 龍城區 七道泉子鎮) 소재 요령 조양 조화석국가지질공원(遼寧 朝陽 鳥化石國家地質公園) 일대의 중생대 지층은 공룡의 진화과정을 잘 관찰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 발굴되는 보고로서 고생물학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곳 박물관에 소장된 조류화석에는 주라기 말엽(珠羅紀 末葉)에 몸짓이 적은 공룡이 등에 틀을 달아 나는 시조(始祖)새를 거쳐 드디어 조류로 진화해 나가는 흔적을 잘 추적할 수가 있었다.

인간의 몸짓 남직한 한 쌍의 나는 공룡, 이르되 앵무익룡(鸚鵡翼龍)이 화산재에 순시에 매몰, 소위 중생대 폼페이(Pompeii)의 기적을 재연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지구촌 첫 사랑

공룡이 천하를 군림하다
날고픈 꿈
퍼덕이던 무렵

날개 단 한 쌍의
앵무익룡(鸚鵡翼龍)

느닷없이 날아든 화산재에
목숨 던져 서로 부여안고

영원히 피어놓을 수 없는
한 몸 되어

중생대 폼페이와 그날을 고스란히
영겁의 타임머신에
아로새겨 놓은

지구촌 첫 사랑

어찌 화석이라 할 수 있으랴
일억 삼천 만년이나 긴 성장
지금도 참 본보기로 살아
죽어서도 하나 되는
거울 같은 사랑 일깨워 주고 있다.

3. 지구사랑, ‘UN이 정한 지구의 해’ 헌정시(獻呈詩)

2009년 11월 10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가 주관한 산업시찰 방문단이 이수성 회장을 모시고 유성 대덕과학단지 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방문했다.

지질박물관 시찰에 앞서, 앞뜰에 세워진 시비 ‘지구사랑’을 관람하게 되었다.

장호완 원장께서 시비의 내력에 대해 설명이 있었다. 2007~2009년 그가 선도한 ‘UN이 정한 지구의 해’ 국내사업의 결실로 그 헌정시 ‘지구사랑’을 제정하여 온 국민에게 지구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나아가 후세의 귀감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하에 이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필자가 작시 집필하였기에 여기에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구사랑

아득한 태고 혼돈의 46억 년 전
우주를 휘돌던 별 씨앗들 모여
지구를 이루어 태양계로 둥지를 틀었지

하늘에서 청정의 빗물 받아 계곡과 바다 이루고
파릇한 이끼 돋아 초목, 색색의 계절로 수놓아
아침저녁 황금빛 노을잔치에 노래 부르는 금수강산

푸른 공기,
맑은 물,
풍요로운 보화,
절로 절로 우리를 살찌게 하였지

급기야 인간의 오만과 그지없는 욕망으로
순하디 순한 생태계를 뒤흔들어 놓아
온갖 재앙으로 우릴 위협하고 있거늘

어쩔거나, 지구여
그대는 단 하나 밖에 없는 필연의 동반자
우리의 고향,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생명,
우리의 유일한 유산

오! 지구여
대대손손 물려줄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여!